

2027학년도 시선공통모의고사 문제지

국어 영역

2회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
  - 독서 .....
  - 문학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독서는 글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독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하며, 이를 주로 ㉠ 인지적 관점과 ㉡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인지적 관점은 독서를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인 도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로 설명한다. 이때 독자는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한 뒤 이를 자신의 지식과 연결하여 목적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며, 독서 중 밑줄 긋기나 기호 표시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정보를 구조화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추려내어 글을 파악할 때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설명한다.

한편, 사회 구성주의 관점은 인지적 관점과 달리 독서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여 독서를 설명한다. 사회 구성주의 관점은 독자와 필자를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설명한다. 담화 공동체란 지식 체계와 가치관, 담화 수행의 규약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이 관점에서 글의 의미는 개인의 지식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담화 공동체의 관습에 의해 수용되며 결정된다. 필자가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지식, 사고,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글을 작성하면, 독자가 공동체가 공유하는 맥락 속에서 수용함으로써 글의 의미가 구성된다고 사회 구성주의 관점은 설명한다.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독서란 담화 공동체의 관습을 바탕으로 글을 수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인데, 이는 상호 텍스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상호 텍스트성은 모든 텍스트의 의미가 다른 텍스트 간의 연결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글에 내재한 공동체의 지식이나 신념 등의 전제를 공유하는데, 독자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명시된 글의 내용을 생략된 정보나 다른 글과 연결함으로써 글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때 수용된 글의 의미가 공동체의 관습에 변화시킴으로써 글의 구성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 구성주의 관점은 독자를 단일한 집단으로 단순화하기에 실제 독자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독서는 독자와 필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관습만을 강조하기보다 글의 정보를 조직하는 인지적 전략도 함께 고려할 때 이뤄진다. 담화 공동체의 맥락과 전제를 고려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도식이 부재한다면 타당한 의미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는 글의 정보를 도식과 연결하여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글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 ③ 필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④ 자신이 속한 담화 공동체의 가치관을 고수함으로써 글의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
- ⑤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더라도 글의 타당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2. ㉠, ㉡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독자가 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수동성을 강조한다.
- ② ㉡은 개인의 지식에 의해 구성되는 글의 의미를 배제하여 독서를 설명한다.
- ③ ㉠은 개인의 독서 과정을 강조하여 독서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을 간과한다.
- ④ ㉡은 독자를 다양한 집단으로 분류하여 개별 독자의 다양성을 간과한다.
- ⑤ ㉠과 ㉡은 모두 글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간과하여 독서를 설명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대학생 A는 환경 동아리 세미나 발제를 위해 환경 정책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 A는 책을 읽으며 세미나에서 다루기 좋은 핵심 주장들에 밑줄을 긋고, 이를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결하여 발제문을 요약했다. 또한 A는 동아리 부원들이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책의 내용을 해석했으며, 이를 이전에 동아리에서 함께 읽었던 대체 에너지 관련 논문의 내용과 연결 지어 이해했다. A의 발제 이후, 환경 정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아리 내에서 새로운 토론 방식이 생겼다.

- ① A가 책을 읽으며 핵심 주장에 밑줄을 긋는 것은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정보를 구조화하여 글을 파악할 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겠군.
- ② A가 발제문을 요약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한 것은 인지적 관점에 따르면 도식을 활용하여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A가 동아리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책을 해석한 것은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담화 공동체의 전제를 바탕으로 글을 수용한 것이겠군.
- ④ A가 책의 내용을 이전에 읽은 글과 연결 지어 이해한 것은 상호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글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겠군.
- ⑤ A의 발제 이후 동아리 내에 새로운 토론 방식이 생겨난 것은 성공적인 독서를 위하여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이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적 비판 이론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현실 비판을 ㉠ 일컫는다. 그들은 근대적 이성의 힘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지성인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인식을 통해 사회적 부조리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사유의 틀을 제시하여야 했다. 근대적 이성이 합리적 질서를 확립한다는 믿음 뒤에 숨어 있는 권력 관계와 억압 구조를 폭로하며, 그들이 규정한 이성이 가져온 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닌 자본과 제도에 인간이 예속되는 반자유적 현상임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러한 비판 이론의 대표주자인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통적 변증법의 ‘정’과 ‘반’의 대립을 ‘합’으로 통합하는 개념과는 다르다. 부정변증법을 통해 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는 전통적 변증법에서는 ‘합’의 수단에 불과한 ‘부정’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이의 철학을 ㉡ 뒷받침한다. 이는 근대적인 보편 이성이 개인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현실의 복잡성과 개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철학이며, 아도르노는 그것에 맞춰 실제 현실의 다층적·복합적 측면을 인정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정변증법은 기존 변증법의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해체하고, ‘부정’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한다. 기존 변증법에서 ‘부정’이 종합되고 말아 궁극적 긍정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반기를 든 그는, 근대적 이성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에 불과하고 자유를 향한 수단이 아닌 인간을 사회체계에 예속하는 억압적 장치임을 지적했다. 또한 변증법의 방식은 이러한 억압적 요소를 강화하며, 이성과 제도를 동일시하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개인의 자율을 제약하는 권력과 맞닿아있음을 주장한다. ‘부정’이 종합되어 궁극적 긍정 지향의 수단이 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을 근대적 이성에 예속하는 것이라 본 것이다. 아도르노는 부정변증법을 통해 대상과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 즉 다양한 인간과 획일된 이성의 불일치를 은폐하는 구조를 폭로하고자 하였다. 아도르노에게 부정변증법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구조를 비판하고 근대적 이성의 획일성을 끝없이 의심하는 이론적 무기가 된다.

그는 사회의 권위주의와 이성의 독단적 지배를 비판하고 인간 해방의 가능성을 ㉢ 열려 하였다. 부정변증법을 통해 사고와 사회가 이성으로 대변되는 ‘완결된 진리’에 예속되지 않도록 하며, 끊임없이 세계를 균열시키고 차이를 드러내도록 이끌고자 한 것이다. 그는 어떤 체계나 개념도 절대적이지 않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해방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보았다. 부정변증법은 제도와 사상의 굳어진 틀을 깨뜨리는 역동적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 절대적인 가치로 표상되던 이성이 가져온 지배 논리와 권위주의의 부작용을 탐색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방식은 그 자체로 어떤 실천적 비전을 제공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기존 구조를

해체하는 것에만 주력하는 부정의 논리만으로는, 대안이나 미래적 전망의 부재로 비판을 넘어선 어떠한 수립적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변증법은 이성과 개념이 가진 폭력성을 강조하지만,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언어와 개념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다. 아도르노는 개념이 대상에 내재하는 비동일성을 온전히 ㉣ 이끌어낼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와 개념에 ㉤ 유보적 태도를 지속할 수는 없으며 그것을 전면 부정할 수도 없다는 문제의식이 등장하는 것이다. 언어와 개념은 세계를 단순화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개인이 현실에 개입하거나 상호 소통을 이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부정변증법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옹호 또한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모순이 존재한다.

아도르노는 대중문화와 같은 거대 자본체제와 문화가 결합한 행태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대안적 문화로의 참여적 움직임을 어떻게 이루어낼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문화의 위상을 대중 문화부터 전위 예술까지로 ㉥ 나누고 그들의 위계화는 이루어졌지만, 이를 포괄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실천적 전략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부정변증법이 전면으로 마주해온 수립적 동력의 부재에 대한 비판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거부와 유보, 그리고 위계화만으로는 협력의 다른 양상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 이론이 지닌 태생적 딜레마가 재차 드러나는 것이다. 그가 지닌 문화에 대한 높은 기대는 다시 그가 제시한 문제점인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부정변증법처럼 부정성의 강조가 너무 심화되면 결국 어떠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여지를 제약해버릴 위험이 존재한다. 부정은 기존 권위와 구조를 무너뜨리는 동력이 될 수 있으나, 태도적 측면만 제시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 탓에 이론을 공허한 저항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부정변증법은 이론적 무기로서의 강점과 실천 부재라는 약점을 함께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아도르노의 사유가 보여준 날카로운 문제 제기의 가치는 존중할 만하나, 사회 변혁의 구체적 방향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이론 체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근대적 이성이 다양화를 통해 가져온 권력 관계와 억압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 ② (가)는 새로운 ‘부정’의 도입을 통해 긍정적 합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나)는 부정변증법이 제시한 수립적 동력의 부작용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밝히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기존의 권위주의적 세계를 비판하고 부정변증법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⑤ (가)와 달리 (나)는 부정변증법이 가진 실천적 한계의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가)의 **부정변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비판하며 끝없는 유보적 태도를 지향한다.
- ② 부정은 합으로 전락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강조되는 태도를 지향한다.
- ③ 완결된 진리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존 제도에서의 해방을 추구한다.
- ④ 기존의 억압적 방식을 폭로하며 이성의 확일성을 의심하는 방안이다.
- ⑤ 실제 현실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개념과 실제 간의 불일치를 드러낸다.

6.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도르노가 제시한 언어와 개념의 대안적 방안 또한 대상과 개념의 불일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 ② 개념과 대상의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그것에 대한 끝없는 유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차이와 다양성은 인간이 현실에 개입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방해한다.
- ④ 필연적으로 불일치를 촉발하는 언어와 개념의 근대적 사용은 재고해야 한다.
- ⑤ 부정변증법이 추구하는 차이와 다양성은 기존 변증법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7.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글쓴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대적 이성의 폭력성을 견지하는 태도로 충분한 사회적 기반을 세울 수 있다.
- ②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는 새로운 '부정'의 도입으로 극복될 수 있다.
- ③ 일직선적 발전 논리의 거부를 통해 인간이 권력 관계로 예속되는 것을 완화할 수 있다.
- ④ 대중 문화와 자본의 결합은 부적절하며, 전위 예술이 대중 문화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일직선적 발전 논리를 해체하는 과정은 개념과 대상의 대립을 해소한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위 예술은 기존 예술에 있어서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저항적 예술이다.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규범을 파괴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을 표출한다. 형식의 파괴와 부정을 통해 무의미한 의미를 창출하는 다다이즘, 사물을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평면에 담아내고자 하였던 입체파가 전위 예술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전위 예술이 지닌 해체적 특징은 높이 평가되지만, 대중적인 문화까지 나아가기에는 문화적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 ① 근대성의 억압을 문제 삼는 관점은, 전위 예술이 기존의 합리성을 거부하는 것이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것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겠군.
- ② 수립적 동력의 부재를 우려하는 관점은, 전위 예술만으로는 개인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문화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겠군.
- ③ 진리의 완결을 부정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관점은, 전위 예술이 새로움과 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규범을 파괴하는 사유의 틀이라고 판단하겠군.
- ④ 언어와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여러 방향에서의 모습을 평면에 담는 과정을 소통의 다양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겠군.
- ⑤ 현실의 다층적·복합적 측면을 인정하는 관점은, 무의미한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근대적 이성의 확일성을 해체하는 것으로 판단하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칭(指稱)한다 ② ㉡ : 개선(改善)한다
- ③ ㉢ : 개척(開拓)하려 ④ ㉣ : 도출(導出)할
- ⑤ ㉤ : 구분(區分)하고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절대 영도 이상의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물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적외선을 강하게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더 긴 파장을 방출한다. PIR 센서는 이렇게 방사되는 적외선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변화할 때 그 변화를 감지해 동작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주변 환경에서 스스로 나오고 있는 적외선 신호만으로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동작을 감지하기 위해 PIR은 ㉠ 초전소자와 ㉡ 프리넬 렌즈를 사용한다. PIR에는 적외선에 반응하는 두 개의 초전소자가 나란히 장착되어 있는데, 초전소자에 적외선이 입사되면 전압이 발생한다. 초전소자에서 발생한 전압은 매우 낮아 센서 내부의 증폭 회로를 거쳐야 한다. 두 소자는 회로와 서로 반대 위상으로 연결되어 동일한 적외선이 입사될 때 한 초전소자는 양의 신호를 내보내고, 다른 초전소자는 음의 신호를 내보낸다. 증폭된 신호들은 종합되어 하나의 차동 그래프를 형성하며, 그래프는 물체가 지나가지 않을 때에는 평형을 유지한다.

목표 물체가 감지 영역을 가로지르면 그래프는 그에 맞춰 변동하며, 물체가 감지 범위에서 벗어나면 그래프는 다시 평형을 이루게 된다. PIR은 이러한 그래프의 변동을 바탕으로 동작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물체가 양의 초전소자의 감지 영역과 음의 초전소자의 감지 영역을 차례로 지나면 그래프는 상승과 하강의 과정을 거친 후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외부 환경이 서서히 따뜻해지거나 차가워지는 경우 두 초전소자에 거의 동일한 온도 변화가 동시에 생기므로 양과 음의 신호가 상쇄되어 그래프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초전소자의 감지 방식은 빛을 매개로 하기에 직진성이 강해 감지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IR에 프리넬 렌즈를 장착하여 감지 범위를 확장한다.

초전소자 전면에 장착된 하나의 프리넬 렌즈는 오작동을 유발하는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적외선을 초전소자에 모으는 역할을 한다. 프리넬 렌즈를 통해 초전소자는 더욱 넓은 각도에서의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두 초전소자의 감지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초전소자가 내보낸 신호의 차이와 그래프의 변화량이 명확해지도록 돕는다. PIR은 벽면이나 천장에 설치되기에 프리넬 렌즈는 전방의 180° 영역을 감지하거나 아래의 360° 영역을 감지하도록 장착된다.

적외선으로 인해 PIR의 그래프는 변동하며 그 변화량은 PIR에 설정된 임계값과 비교된다. 임계값을 초과한다면 연결된 장치에 신호를 전송하여 동작이 감지되었음을 알린다. 만약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 대상인 경우, 평균적인 표면 온도인 20~35°C의 물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을 기준으로 임계값을 설정한다. 임계값이 낮으면 민감하게 동작을 감지하지만 목표 대상이 아닌 대상에도 쉽게 반응할 수 있으며, 임계값이 높으면 작은 움직임을 놓칠 수 있지만 오작동을 줄이기에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 영역의 기온 변화와 감지 영역에 존재하는 배경 물체의 온도 또한 임계값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PIR은 물체의 온도와 움직임을 활용해 동작을 감지한다. 따라서 배경 물체와 목표 물체의 온도가 같으면 동작을 원활히 감지하지 못하며, 움직임만을 판단하기에 정지된 대상은 감지하지 못한다. 또한 움직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다. PIR의

설치 위치 또한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열이 발생하는 물체 근처에 설치하면 부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외부의 강한 적외선이 센서에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파장이 긴 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체는 파장이 짧은 경우보다 동작이 감지되기 쉽다.
- ② 초전소자에 적외선이 입사되면 이는 내부 회로를 통해 신호로 변환된다.
- ③ PIR의 목표 대상이 인간이라면 설치된 공간의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PIR은 인체의 동작을 감지할 수 있다.
- ④ 프리넬 렌즈를 통해 두 초전소자는 적외선을 더욱 넓은 영역에서 감지할 수 있다.
- ⑤ 목표 대상과 동일한 온도의 대상이 감지 영역을 지난다면 PIR은 동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1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에 입사된 적외선으로 인해 발생한 전압은 서로 상쇄되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 ② ㉡이 180°를 감지할 수 있게 장착된다면 PIR을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③ ㉠은 적외선을 매개로 하기에 ㉡을 통하여 한계를 보완한다.
- ④ ㉠은 ㉡을 통해 넓은 범위로 적외선을 방사하여 목표 물체의 동작을 감지한다.
- ⑤ 두 개의 ㉠에 따로 장착된 ㉡은 감지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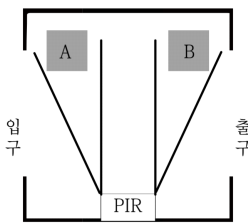
12. 차동 그래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차동 그래프는 두 초전소자가 내보내는 신호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구성된다.
- ② 물체가 양의 초전소자 영역에서 멈춘 경우 그래프가 상승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물체가 음의 초전소자 영역에서 양의 초전소자 영역 순으로 지날 때 그래프는 하강한 후 상승하는 양상을 띈다.
- ④ 배경 물체의 온도와 목표 물체의 온도의 차이가 작다면 그래프의 변화 폭은 차이가 큰 경우보다 크다.
- ⑤ 배경 물체의 온도가 목표 물체의 온도보다 현저히 낮을 때 차동 그래프는 목표 물체의 적외선을 원활히 반영한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그림은 PIR이 장착된 방을 내려다본 모습이다. PIR의 목포 감지 대상은 평균 체온의 사람이며, 임계값은 배경 물체의 온도가 10°C 이하일 때 원활히 동작이 감지되도록 설정되었다. PIR의 양 끝에서 뻗어나가는 두 직선의 사이가 각각의 초전소자의 감지 영역이며, A와 B는 각각 양의 초전소자 영역과 음의 초전소자 영역에 존재한다. 입구와 출구로 물체가 드나들 수 있다.



- ① 입구와 출구에서 강한 적외선이 유입된다면 초전소자에 적절한 전압이 발생되기 어렵겠군.
- ② 평균 체온의 사람이 출구에서 입구로 이동하여도 PIR은 동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겠군.
- ③ A와 B의 온도가 10°C라면 사람이 지나갈 때 PIR은 원활하게 동작을 감지할 수 있겠군.
- ④ A의 표면 온도가 30°C로 상승하고 10°C로 하락한 직후 B 또한 동일하게 변화하여도 PIR은 동작을 감지하지 않겠군.
- ⑤ A와 B의 온도가 30°C라면 사람이 감지 영역을 지나더라도 그래프의 변화 폭은 임계값을 넘기기 어렵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쿼모 9

농지와 식품의 적법한 취급은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며, 이는 곧 농지법·원산지표시법·식품위생법에 의해 규율된다. 농지법은 경작지를 소유·거래·이용하는 전 과정을 법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정되었다. 농지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은 농지를 자기 영농에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만 소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나 학교, 연구기관, 주말 체험 영농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되면 비농업인이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경 원칙은 농지가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군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농업진흥지역처럼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에서는 무분별한 전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농지의 임대나 위탁경영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지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토지 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신청과 발급 과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이용계획을 엄밀히 검증한다. 취득 후 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처분명령을 어길 시 공공기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처분명령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되면 강제처분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농·축·수산물을 비롯하여 각종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원산지표시법은 소비자 권익과 공정 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식당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김치 등의 주요 식재료나 온라인 쇼핑물, 배달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표시된 정보를 통해 소비자는 정확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고, 생산자는 품질 개선에 매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법에서는 거짓 표시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 한다. 예컨대 해외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이득을 피하거나, 표시를 ㉤누락하고 판매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메뉴판이나 벽보를 통해 원산지를 알리고, 거래명세서나 계약서에 원산지를 기재·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후 감독을 용이하게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반복적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장 명칭을 공표하고 2년 내 거짓 표시 재적발 시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도 위반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식품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위생과 품질 수준을 ㉦엄격히 규제한다. 이 법은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판매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과정을 규율하며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 급식소 운영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식품영업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업원에게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한다. 법령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나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보관 온도 준수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금지 등 엄격한 위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무허가 영업, 허위 및 과장 광고, 유해 물질 혼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제재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예컨대 의도적으로 유해 식품을 유통했다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마찬가지로 가중처벌된다.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이용 계획이 검증되어야 한다.
- ② 농업인이 허가받지 않고 농지를 위탁경영한다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③ 식당의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원산지표시의 사후 감독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 ④ 온라인 쇼핑물이 축산물의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 ⑤ 급식소 영업자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을 시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15.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는다면 ㉠이 위반되지 않는다.
- ② ㉡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광범위한 관리를 도모한다.
- ③ ㉠은 ㉡와 달리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위반된다.
- ④ ㉠은 ㉡와 달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⑤ 원산지를 속여 광고하면 ㉠과 ㉡ 모두에 위반된다.

16.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B 프랜차이즈 본사는 중국산 마늘을 본사 계약 농장에서 재배한 국내산 마늘로 속여 전국 직영 매장에 공급해 왔다. 각 매장은 “본사가 공급한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메뉴판에 ‘국내산 마늘’라고 거짓이 게시하였다. 그러던 중 A 매장의 마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위생 검사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일면서, S 본사가 집중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 조사 당국은 “B 본사에서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매장에 납품해 왔고, 각 매장은 사실상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셈”이라며 A 매장에 행정제재를 내렸다. A 매장의 대표는 “본사를 통해 식자재를 받았으니, 이 문제는 본사 책임이지 매장 책임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조사 당국은 “매장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 ① A 매장은 본사가 제공한 식자재에 대해 원산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것이다.
- ② B 본사는 수입 마늘을 거짓 표기하여 매장에 납품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었을 것이다.
- ③ A 매장은 행정제재에 따라 매장명이 공표되며 반복 적발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 ④ B 본사가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 광고로 광고하였다면 마늘의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 ⑤ 마늘의 이물질이 유해 물질이라면 B 본사의 대표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17. ㉠~㉣와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높이고
- ② ㉡: 올바른
- ③ ㉢: 다하지
- ④ ㉣: 빠뜨리고
- ⑤ ㉤: 폭넓게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주인공 유영은 안평대군의 옛 집이었던 수성궁 터에서 취해 잠들었다. 유영은 일어나 김진사와 운영의 영혼을 만났고, 운영은 유영에게 자신과 김진사의 과거를 말하기 시작한다.

하루는 대군이 비취를 불러,  
 “너희들 열 명이 한방에 같이 있으니 업을 전념할 수 없다.”  
 하시고 다섯 명을 나누어 서궁에 가서 있게 하니, 저는 자란 은섬, 옥녀, 비취와 같이 즉일로 옮겨갔습니다. 옥녀가 말하길,  
 “그옥한 꽃, 흐르는 물, 꽃다운 수풀이 산가나 야장과 같으니, 참으로 훌륭한 독서당이라 말할 수 있구나.”

이에 제가 대답했지요.  
 “산 사람도 아니고 중도 아니면서 이 깊은 궁에 갇혔으니, 정말로 이른바 장신궁이다.”  
 하였더니, 좌중 궁인들이 자탄하고 울적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편지를 써서 뜻을 이루고자 했으며, 진사님도 지성으로 무너를 찾아 간절히 부탁을 하였으나 그녀는 오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니, 아마 진사의 뜻이 자기한테 없음을 **유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중략)

진사가 그날 밤 들어오셨으나, 저는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자란으로 하여금 맞이해 들어 술 석 잔을 권하고는 봉서를 주면서 제가 말했지요.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니, 삼생의 인연과 백년의 가약이 오늘 밤으로 다한 것 같습니다. 혹 천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마땅히 구천지하(九天地下)에서 서로 찾게 되겠지요.”

진사는 편지를 받고 우두커니 서서 맥맥히 마주 보다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자란은 처량하여 차마 볼 수 없어 몸을 숨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진사가 집에 돌아와 봉서를 뜯어보니,

‘박명한 운영은 두 번 절하고 엎드려 사죄하옵니다. 제가 비박한 자질로서 불행하게도 낭군님께옵서 유념하여 주시어 서로 생각하기를 몇 날이며, 서로 바라보기를 몇 번이나 하다가 다행히 하룻밤의 즐거움을 나누었을 뿐, 바다 같이 크고 넓은 정은 다하지 못하였나이다. 인간사 좋은 일에는 조물주의 시기함이 많사와, 궁인이 알고 대군이 의심하시어 조석으로 화가 다가왔으며, 낭군께서는 작별한 후로 저를 가슴에 품어 두시고 상심치 마시옵소서. 힘써 공부하시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고 후세에 이름을 날리시어 부모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의복과 보화는 모두 팔아서 부처님께 바치시어 여러 가지로 기도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소원을 내어 삼생의 미진한 연분을 후세에 다시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사는 다 보지를 못하고 기절하여 땅에 넘어지니 집사람들이 뛰어나와 구하시니 다시 깨어났습니다.

“궁인이 무슨 말로 대답을 하였기에 이렇게 죽으려 하시나이까?” 하고 물으니 진사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재보는 내가 잘 지키고 있느냐? 내 창차 다 팔아서 부처님께 속약을 실천하리라.”

특이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궁녀가 나오지 않으니 그 재보는 하늘과 나의 것이겠지.’

하며 벽을 향하여 남몰래 웃었으나, 사람들은 까닭을 알 수 없었지요.

하루는 특이 스스로 옷을 찢고 코를 쳐서 피가 흐르게 하여 온 몸을 더럽히고 머리를 흐트리고 맨발로 뜰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강적의 습격을 받았나이다. 외로운 한 몸이 산중을 지키다가 수많은 도적들이 습격하여 오므로 목숨을 걸고 도망쳐 왔나이다. 만일 그 보화가 아니더면 제게 어찌 이와 같은 위험이 있으리이까?”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므로 진사님은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얼마 후 진사님은 특이 소행을 알고 노복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의에 ㉠ 그의 집을 수색하여 보니 다만 금팔찌 한 쌍과 운남 보경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이 전파되어 궁인이 대군께 고하니, 대군이 대노하여 남궁인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한즉 저의 의복과 보화가 전부 없어졌으므로, 대군이 서궁 궁녀 다섯 사람을 ㉡ 뜰에 불러놓고, 형장을 엄하게 차려놓고 영을 내리기를,

“이 다섯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하지고는 집장 한 사람에게,

“장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렀다!”

이에 다섯 사람이 호소하였습니다.

“바라건대 한 번 말이나 하고 죽겠나이다.”

하고 **은섬이 초사를 올리니, 대군이 보기를 마치고 나**시더니 또 한 번 초사를 다시 펴고 보시는데, 노여움이 좀 풀리는 것 같으므로 소옥이 엎드려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전날 빨래하러 갈 때에 성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가이 여겨 군의를 물리치고 따랐사옵나이다. 운영의 훼손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게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 주옵소서.”

- 작자 미상, 「운영전」 -

1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운영이 산에 사는 사람과 중처럼 깊은 궁에 갇혔다고 말하자, 궁인들은 이를 자탄하고 울적하게 여기었다.
- ② 자란은 진사가 편지를 받고 울며 나가는 모습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 ③ 진사는 질문에 대답을 한 뒤, 특에게 재보를 잘 지키고 있는지 되물었다.
- ④ 특이 진사에게 강적에 습격을 받았다 하자, 진사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였다.
- ⑤ 소옥은 자신은 자란의 청에 따랐을 뿐이니, 운영의 죄는 운영이 아닌 자란에게 있다며 대군에게 아뢰었다.

19.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세운 모략은 ㉡에서 실행되었다.
- ② ㉠에서 인물은 사건의 전말을 깨닫게 되고, ㉡에서 그 사건의 주동자를 처벌하고 있다.
- ③ ㉠은 인물이 의도 없이 방문한 곳이고, ㉡는 인물이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은 곳이다.
- ④ ㉠에서 물건이 발견된 것은 ㉡에서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 ⑤ ㉠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에서 인물은 이를 해명하고 있다.

2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받는 이와 ‘바다같이 크고 넓은 정’을 다하였음을 전한다.
- ② 받는 이가 글쓴이를 ‘가슴에 품어 두’고 ‘상심치’ 않기를 전한다.
- ③ 받는 이와 ‘하룻밤의 즐거움을 나누었’던 것이 ‘불행’한 것임을 전한다.
- ④ 자신의 ‘의복과 보화’를 팔아서 받는 이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를 전한다.
- ⑤ 받는 이가 ‘벼슬길에 오르고 후세에 이름을 날리’어서 ‘미진한 연분을 후세에 다시 잇게’ 해주기를 전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운영전」은 ‘현실-꿈-현실’ 구조의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된다. 이때 ‘꿈’에서의 이야기가 주인공 운영의 관점이 아니라 운영의 관점에서 주로 서술된다는 점은 다른 몽유록계 소설들과의 차이점이다. 운영의 관점에서 서술됨으로써 당시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추측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하며,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하기도 한다. 한편, 서술자가 당시에 직접 보지 못한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기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유감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기도’ 하다는 것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서술자인 운영의 추측을 함께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그 재보는 하늘과 나의 것이겠지’라고 속으로 말하는 장면에서, 서술자인 운영이 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사람들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서술자인 운영의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따뜻한 말로 위로하여 주셨’다는 부분에서, 서술자인 운영이 당시에 직접 보지 못한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은섬이 초사를 올리니, 대군이 보기를 마치고 나’는 부분에서, 서술자인 운영이 직접 보지 못한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엮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짧은 쌍에게 짐짓  
 ㉡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싯대 개죽에 덮여  
 ㉢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침녕쿨처럼 머루 녕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아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다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 신경림, 「산에 대하여」-

(나)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 주는  
 최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최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열고 가을 산은 비었는데, 파리한 바  
 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읊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 있는, 지  
 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일경초(一莖草)가 장륙금신(丈六金身)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  
 경초가 됩니다.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萬有)는 같은 소조(小鳥)입니다.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 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지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남을  
 떠난 나는 아아 행복합니다.

- 한용운, 「낙원은 가지덤불에서」-

(다)

어머니는 삼십대의 젊은 나이로 이곳에 유택을 정했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을 앓아왔다. 그  
 아픔 밑바닥에는 존재에 대한 애착과 삶의 그늘, 지금쯤이면 기  
 쁨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상 같은 환상이 깔려 있었다.  
 ㉠ 때문에 어머니만 떠올리면 항상 슬픔이 묻어있는 회색빛 공  
 간에 갇힌 기분이었다.

㉡ 그런데 어제는 그렇지 않았다. 바가지를 얹어놓은 듯한  
 한 평 남짓한 **어머니의 무덤**이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  
 껴질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진 나목들의 자유처럼, 칙  
 칙하고 고뇌스럽던 삶의 찌꺼기를 벗어던지고 아무 일도 없었  
 다는 듯 황량하게 잠들어 있는 들녘의 망각처럼. 어머니의 정지  
 된 세월이 무척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새롭게 다가선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  
 며 밤잠을 설치고 말았다. 어찌하여 가련한 어머니의 모습이 행  
 복한 모습으로 반전되었을까 하는 내 의식의 질문 때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만한 이유가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무언가  
 잃고 있는 내 외로움 때문이라 할까. ㉢ 세월을 잃어가고, 젊음을  
 잃어가고, 가슴을 뜨겁게 했던 사람들을 잃어가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초조감 때문일까. 그것이 내일일지 아니면  
 일 년 후가 될지, 오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내 옆을  
 떠나간 것처럼 나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나는 요즘 그런 분명한 사실을 엄숙히 맞이하기 위해 연습을 하  
 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근간에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니다.  
 오십대 후반부터 째짤이 생각하면서 **서서히 버리는 연습**을 한 것  
 이다. ㉣ 다만 그 때의 연습이 여유 있는 행동이었다면 지금은 진  
 지하면서도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일거리가 있는 사무실을 벗어나 이렇듯 하  
 늘과 바람, 햇살과 나무, 시들어 있는 들풀과 허무가 깔려 있는  
 먼 들판길을 산책하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마음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 언제쯤이면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어둠 속에 갇혀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  
 고, 사랑이니 영광이니 행복이니 하는 것들을 한갓 휴지 조각  
 처럼 무심히 던질 수 있을까. ㉤ 그러기 위해서 나는 또 이 길  
 을 얼마나 더 많이 걸어야 할 것인가.

- 안재진, 「이별 연습」-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비되는 시어를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다)는 화자의 경험을 서술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우리가 겪은 경험은 인식과 깨달음을 촉발하여 대상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거나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자연물의 변화를 목격한 경험으로부터 순환하는 자연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고통과 행복에 관해 고찰하여 자신이 갖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특별한 장소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으려 한다.

- ① (나)에서 ‘매화나무 가지’와 ‘눈 위’에 오는 ‘봄기운’이 아름답다는 것은, 계절과 함께 변화하는 자연물의 모습을 목격했던 경험이겠군.
- ② (다)에서 ‘어머니의 무덤’을 방문한 뒤 ‘새롭게 다가선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에 방문하여서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변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난여름의’ 녹음이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진 후 ‘기억’에만 남았다는 것은, 변화하는 자연 속 계절을 인식하고 자연이 변화할 수 있던 이유를 제시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서서히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은,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있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고통’과 ‘환희’를 언급한 화자가 ‘행복’을 언급하는 것은 고통 후의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화자의 태도를, (다)에서 ‘정지된 세월’이 ‘행복할 것’ 같다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죽음을 수용할 힘을 얻었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2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원래 있던 장소에서 빠져나온 존재가 선망하는 대상이다.
- ② ㉡: 산을 오를 때 고생을 덜어주는 존재가, 숨을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어 주는 대상이다.
- ③ ㉢: 토속적인 존재가 자연과 어우러져서 누릴 수 있는 대상이다.
- ④ ㉣: 마을과 가까이에 있어야 산이 느낄 수 있는 대상이다.
- ⑤ ㉣: 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모든 산이 하지는 않는 것이다.

25.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라는 것은 꽃을 가져 갔던 존재가 향기를 주기도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② 2연에서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라는 것은 쇠약한 주변의 자연물과 다르게 단풍은 아름답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③ 2연에서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읊니다’라는 것은 ‘단풍’의 행동을 통해 대상의 외면과 내면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④ 3연에서 ‘장류금신이 일경초가 됩니다’라는 것은 사물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 ⑤ 3연에서 ‘천지는 한 보금자리’며, ‘만유’는 ‘같은 소조’라는 것은 만물의 모습이 다양하더라도 그 근본은 같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2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머니에 대해 ‘나’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다.
- ② ㉡: ‘나’가 어머니에 대해 어제 느낀 감정은 이전까지 느꼈던 것과 다름을 암시하고 있다.
- ③ ㉢: 어머니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인 상실에 의한 나의 외로움에 대하여 내가 상실하고 있는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④ ㉣: 서서히 버리는 것을 오십대 후반 때보다 더 진지하고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지는 마음이 꾸준히 필요함을 서술하고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펍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 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 왔는데, 우리 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큰외삼촌 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에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 줍니다. 또 가끔 과자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 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에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옥희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누?”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한 알 집어 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두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짹짹 찌고,  
“아,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그러시지요. 그래도 나는 한번 맘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안마당으로 뛰쳐들어가면서,

“㉠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두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 떠들지 말어.”

하고 ㉡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 달걀장수 노친네가 오면 한꺼번에 열 알도 사고  
스무 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으레  
나도 한 알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 담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중략 부분 줄거리]** ‘아저씨’는 방학이 되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날 오후에 아저씨가 떠나간 다음 나는 방에서 아저씨가 준  
인형을 업고 자장자장 잠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  
서 들어오시더니,

“옥희야, 우리 뒷동산에 바람이나 쐬러 올라갈까?”  
하십니다.

“응, 가, 가.”

하면서 나는 좋아 덤비었습니다.

잠깐 다녀올 터이니 집을 보고 있으라고 외삼촌에게 이르고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 나셨습니다.

“엄마, 나 저, 아저씨가 준 인형 가지고 가?”  
“그러렴.”

나는 인형을 안고 어머니 손목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  
다. 뒷동산에 올라가면 정거장이 뻥히 내려다보입니다.

“㉢ 엄마, 저 정거장 봐. 기차는 없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사르르 바람  
이 와서 어머니 모시 치맛자락을 산들산들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어머니는 다른 때보다도 더한층  
이쁘게 보였습니다.

저편 산모퉁이에서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아, 저기 기차 온다.”

하고 나는 좋아서 소리쳤습니다.

기차는 정거장에 잠시 머물더니 금시에 뿅 하고 소리를 지  
르면서 움직였습니다.

“기차 떠난다.”

하면서 나는 손뼉을 쳤습니다. ㉡ 기차가 저편 산모퉁이 뒤로 사  
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 위로 모두 흩어  
져 없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다보았습니다.

뒷동산에서 내려오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때까지  
뚜껑을 늘 열어 두었던 풍금 뚜껑을 닫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  
쇠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전 모양으로 반진 그릇을 얹어 놓으  
십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찬송가를 맥없이 들고 뒤적뒤적  
하시더니 뻘뻘 마른 꽃송이를 그 갈피에서 집어 내시더니,  
“옥희야, 이것 내다버려라.”

하고 그 마른 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 꽃은 내가 유치원에서  
갓다가 어머니께 드렸던 그 꽃입니다. 그러자 옆대문이 삐걱 하더니,  
“㉠ 달걀 사소.”

하고 매일 오는 달걀장수 노친네가 달걀 광주리를 이고 들어  
왔습니다.

“㉢ 인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는 맥이 한푼 어치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놀라서 떼를 좀 써보려 했으나 석양  
에 뻥히 비치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 용기가 없어지고 말았습  
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귀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이었습니다.

“애, 우리 엄마가 거짓부리 썩 잘하누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줄 잘 알문성 생 먹을 사람이 없대누나. 떼를 좀 쓰구 싶지만 저  
우리 엄마 얼굴을 좀 봐라. ㉡ 어찌문 저리두 새파래졌을까? 아마  
어디가 아픈가 보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 2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저씨’는 동리에 교사로 오게 됐으나, 깨끗한 하숙집이 없어 ‘나’의 아버지의 소개로 ‘나’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 ② ‘나’가 ‘아저씨’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묻자, ‘아저씨’도 ‘나’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물었다.
- ③ ‘나’와 ‘어머니’는 외삼촌과 같이 뒷동산으로 향하였다.
- ④ ‘어머니’는 ‘나’와 달리 뒷동산에 올라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⑤ ‘나’는 ‘어머니’가 달걀을 사지 않는다고 하자, 놀라며 달걀을 사달라고 하였다.

##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앞선 대화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른 인물에게 전하는 발언이다.
- ② ㉡는 ㉠에 대한 인물의 반응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인물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③ ㉢에서 드러나는 공간의 모습은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과 ㉢은 두 인물 간의 대화로, 대화를 나누는 두 인물은 정보의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은 다른 인물을 반영하지 않은 발언으로, 이를 들은 인물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여긴다.

29. [달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 ② '나'가 의문을 품는 물건으로, 인물에 대한 낯섦이 드러난다.
- ③ '나'와 인물을 매개함으로써, 다른 인물의 변화가 일어난다.
- ④ '나'의 말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나'의 집안 형편에 대한 어려움이 드러난다.
- ⑤ '어머니'와 '달걀 장수'의 대화를 통해, '나'와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옥희의 어머니와 그 집 사랑손님 간의 사랑과 이별을 내용으로 하는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사건이 서술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서술자는 경어체와 구어체를 혼용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실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한편, 서술자는 사건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며, 인물들의 감정은 서술자가 묘사하는 행동이나 표정 또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서술자가 묘사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은 작중 배경이나 상황과 결부하여 이해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의 감정을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하며, 독자로 하여금 인물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 ① ㉠: 서술자가 경어체와 구어체를 혼용하여 작중 상황의 이유를 서술함으로써, 독자는 이에 대한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겠군.
- ② ㉡: 서술자가 자신의 시선에서 어머니의 표정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는 간접적으로 묘사된 상대방의 생각을 능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군.
- ③ ㉢: 서술자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는 '나'에 대한 사랑손님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군.
- ④ ㉣: 서술자의 시선에서 묘사한 인물의 모습을 시간에 대한 묘사와 함께 생각하면, 독자는 작중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군.
- ⑤ ㉤: 서술자가 묘사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 독자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감정을 어린아이의 시선을 빌려서 바라볼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양금을 파한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산중의 찬물 소리 정결하고 향기 있다  
 이튿날 돌아오니 회상대 놀던 일이  
 저승인가 몽중인가 국은인가 천은인가  
 천애에 이 행색이 이럴 줄 알았더냐  
 흥 다하여 돌아와서 수노 불러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 시는 본관이 보내기로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 불안하다  
 다시는 지휘하여 기생이 못 오리라  
**선비만 데리고서 시 짓고 술 마시니**  
**청산이 글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이라**  
 군산월 녹의홍장 깨고나니 꿈이로다

[A]

(중략)

행장을 다시 차려 **고향**으로 가을 적에  
 새재를 넘어서니 영남이 여기로다  
 오천서 밤새우고 가산에 들어오니  
 마을이 무양하여\* 이전 있던 행각이라  
**어린** 것들 반갑구나 이끌고 안에 드니  
 애쓰던 늙은 아내 부끄러워 하는구나  
 어여뵈사 수득 어미 군산월이 네 왔더냐  
 박잔에 술을 부어 마시고 취한 후에  
 삼천리 남북 풍장 일장춘몽 깨었구나  
 어와 김학사\*야 그릇타 한을 마라  
 남자의 **천고사업** 다하고 왔느니라

강호에 편케 누워 태평에 놀게 되면  
 무슨 한이 또 있으며 구할 일이 없으리라  
 글 지어 기록하니 불러들 보신 후에  
 후세에 남자들은 남자를 부러워 말고  
 이 내 노릇 하게 되면 그 아니 상쾌할가

[B]

- 김진형, 「북천가」-

- \* 녹의홍장: 푸른 옷과 붉은 화장.
- \* 무양하여: 병이나 탈이 없어.
- \* 김학사: 글쓴이 자신을 이르는 표현.

(나)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임이 온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C]

<제3수>

**내 성(性)이** 게으른 걸 **하늘이** 알으실샤  
**인간 만사(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 다툼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이 좋다 한들 ㉠ 내 분으로 누웠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값고자 하여도 헤드릴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흥」-

(다)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이별 나는 ㉡ 구멍도 때우는가  
 장사의 대답하는 말이 진시황 한 무제는 천지를 호령하되  
 위엄으로 못 막고 제갈량의 천하 경영하는 재주로도 막았다는  
 말 못 들었고 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이 구멍 때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을진대 긴 이별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유사한 형식의 반복을 통해 행위를 통한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대상을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 인물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상징어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32.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행위를 마친 후 도착한 '절집'의 풍경을 보고 느낀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 ② [B]에서는 '후세'의 사람들이 '남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 내 노릇'을 할 것을 제시한다.
- ③ [C]에서는 홀로 바라보고 있는 산에 대한 반가움이 '그리던 임'과 비교하여 드러난다.
- ④ [A]에서는 '회상대'에서 놀던 일에 대한 소회가 드러나고, [C]에서는 '먼 산'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연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기생'을 다시 못 오도록 하는 것을 통해 호화로움에 대한 경계가 드러나고, [B]에서는 '구할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통해 이상이 실현되었을 때의 소감이 드러난다.

3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신이 놓인 상황의 원인이라 여기는 대상이다.
-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내력을 설명하는 대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로 인하여 다른 대상을 통해 비교하게 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내포하는 대상이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처한 현실적 한계를 담고 있는 대상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작가는 함경도 유배지의 자연 풍경에 대한 예찬과 사대부로서의 자존심, 가족과의 재회를 작품에 담아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풍류와 흥취를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는 유배를 마친 후 어지러운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기며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시조인데, 화자는 이를 다양한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① (가)는 '선비'를 데리고 '시 짓고 술 마시'는 모습을 통해 유배 중임에도 흥취를 잃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② (나)는 '강산'에서 노는 것이 '님군 은혜'임을 강조하여 자연을 즐기며 사는 삶에 대한 겸손을 드러내는군.
- ③ (가)는 자연을 즐기는 삶을 '천고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자긍심을, (나)는 '하늘'에 의하여 자연에 은거하며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④ (가)는 '고향'의 풍경에 대한 소회와 '어린' 자식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고, (나)는 자연에 은거하며 사는 것이 '내 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임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청산이 글 되'고 '녹수는 그림 되'는 것을 통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나)는 '인간 만사' 대신에 '강산'을 지키는 것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배척을 드러내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